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경제위기 평가에 대한 비개인적 영향가설 검증

경제단위와 평가시점에 대한 지각분화를 중심으로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유재웅 을지대학교 홍보디자인학과 교수

Impersonal Influences Hypothesis on the Novel Coronavirus(COVID-19) Economic Crisis

Perceptual Compartmentalization of Economic Levels and Evaluation Time Frames*

Wan Soo Lee**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Media &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Myungil Cho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Namseoul University

Jae Woong Yoo****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and Design, Eulji University

This study applies the impersonal influence theory to quantitatively examine how individuals evaluate the economy at the individual, societal, and national level with regard to the crisis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pandemic. This paper conducted an online survey on sample data of 579 adults through proportional allocation by gender and population nationwide. We used the "repeated measure ANOVA" method and a post-test using the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method to examine th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levels. To begin with,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spondents evaluated conditions optimistically in terms of viewing themselves as not having been heavily impacted by the economic crisis, but negatively in terms of their prediction that the societal and national economies to which their neighbors belong will be affected to a relatively greater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Dongseo University, "Dongseo Cluster Project" Research Fund of 2020(DSU-20200009)(이 연구는 동서대학교 2020년도 "동서 클러스터 프로젝트"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wansoo1960@gmail.com

*** jhmi0410@nsu.ac.kr

**** yoojw777@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degree. Evaluations were found to be more negative when the societal and national levels were perceived as more distant from the respondents themselves. Second, respondents expressed negative attitudes regarding the economic crisis most strongly for the individual level followed by the societal and national levels, regardless of evaluation time frame. In particular, more negative evaluations were found for the national economy than for the individual or societal economy for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s alike. Third, the most negative attitudes in terms of the individual, societal, and national economy were found for the past time frame, with increasingly positive perspectives for the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s. Fourth, the compartmentalization of judgments regarding individual, societal, and national economic crisis were found to be unrelated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income, region of residence, or news consumption. However, respondents showed more strongly negative evaluations of the national economy for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s the more they identified themselves politically as "conservative," and more positive evaluations when they identified as "liberal." In theory, people have an attitude of so-called "comparative optimism," in which people instinctively evaluate themselves more positively than others when faced with uncertain and dangerous situations. People show this attitude of "comparative optimism" because of self-protective motives and cognitive biases, in which they consider to be less unhappy than others. In particular, the reason people give positive evaluations of future situations that they have not directly experienced is because of the attitude of "unrealistic optimism."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people show negative attitudes when making retrospective assessments of past situations is that "representative heuristic," such as an availability bias, in which negative memories in their heads first come to mind. This unrealistic optimism found in people is linked to a "self-enhancement bias," which reduces psychological anxiety by recognizing that negative things do not happen to the individual herself or himself. The discussion section focused on the ways in which unrealistic optimism operates when individuals are evaluating the impact on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pandemic.

Keywords: COVID-19, Economic crisis, 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 Judgment compartmentalization, Unrealistic optimism

1. 연구목적

매스미디어는 개인들에게 경제적 사실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개인들이 집합적 경제현실을 지각하는데 핵심적인 매개기능을 한다. 매스미디어는 이 과정에 개인적 경제위험 인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 경제위험 판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aller & Norpoth, 1997; Mutz, 1998).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문제는 개인의 경험, 관찰, 그리고 대인소통을 통해 평가되며,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문제는 주로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집합정보를 통해 파악된다. 사람들은 경제문제를 평가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직접적 경험에 의존하지만, 집합적 차원에서는 매스미디어가 형성하는 사회적 여론과 같은 간접경험에 의존한다.

미디어는 개인이 경험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자(他者)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내며, 이 여론은 그 사회의 집단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나 평가에 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미디어는 집합적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지각을 배양(cultivation)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Mutz, 1998). 미디어의 이런 역기능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평가와 다중(多衆)의 집합적 인식에 대한 개인평가가 서로 상이함을 낳는 원인으로 설명된다. 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판단과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 대한 판단이 서로 분화(compartmentalization)되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미디어는 사람들의 집합적 경험현실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여론형성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Mutz, 1998). 따라서 집합적 차원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무관하게 미디어가 제공하는 여론에 영향을 받아 변화될 개연성이 존재한다(Hetherington, 1996; Patterson, 1993).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다이애나 머츠(D. Mutz)는 경제상황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지각과 집합적 차원의 지각을 비교한 결과 집합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이런 지각분화가 여론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한다(Mutz, 1998). 자신의 개인경제와 타자의 집단경제에 대한 지각편차는 잘못된 정치경제적 여론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Jacobs & Shapiro, 1994; Kiewiet, 1983)는 점에서 경제현실에 대한 지각분화를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사람들이 개인경제, 사회경제, 그리고 국가경제를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금세기 들어 다른 어떤 경제위기 문제 보다 사람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Baker, Bloom, Davis, & Terry, 2020; Barua, 2020;

Fernandes, 2020; Yu & Aviso, 2020).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개인은 물론 이웃, 국가경제 모두에게 동시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개인, 이웃, 그리고 국가 단위별 평가 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문제는 집합적 차원의 경험과 관련해 가장 널리 연구된 영역의 하나로서 비개인적 영향가설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기에 적합한 주제로 볼 수 있다(Mutz, 1998). 우리 연구자들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개인 경제상황과 사회 또는 국가 경제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서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머즈의 비개인적 영향가설(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¹⁾)을 적용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한다.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어떤 사회문제가 자신(self)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타자(others)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인의 판단 간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같은 비정상적(abnormal) 상황에서 비개인적 영향가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개인과 집단차원의 판단 분화를 이론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특히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에 대한 지각의 분화가 성, 나이, 소득, 거주지역, 정치성향, 뉴스소비와 같은 조절변수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한 이러한 지각분화의 정도를 살펴보는 학술적 작업은 사회적 경제여론의 적절성은 물론 정부나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나 국민의 지지여부와 같은 정치적 행동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1) 비개인적 영향가설과 지각의 분화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의 위험지각 과정에 개인적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위에서 출발한다. 반면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마스크커뮤니케이션 보다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대인커뮤니케이션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고되어 왔다(차동필, 2020; Tyler & Cook, 1984).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한마디로 특정 문제나 위험이 사회 안에 널리 퍼져있다는 매스미디어의 메시지 구성이 집합적 지각(perception of the

1)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은 미디어가 개인적 판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 차원의 판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확인을 통해 이를 '비개인적 효과 가설(impersonal impact hypothesis)'이라고 명명했다. 이에 반해 머즈가 제시한 '비개인적 영향 가설(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은 타일러와 쿡의 비개인적 효과가설을 포괄하는 좀 더 큰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prevalence)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적 위험지각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Tyler & Cook, 1984).

현대 사회에서 비개인적 영향가설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매스미디어는 개인 경험과 접촉이 가능한 영역의 외부에 있는 세계, 즉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Mutz, 1998). 미디어의 실시간 보도는 개인의 간접적 유대 관계를 확산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는 집합적 의견과 경험을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개별적인 사건을 더 큰 상황 속에 위치시키는 등 비개인적 타자에 대한 간접 접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시킨다(서희정·양승찬, 2019).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머츠(1992)가 잘 정리하고 있는데, 그녀는 비개인적 영향을 개인이 타자의 태도, 신념, 경험을 지각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으로 설명한다.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what to think)’, ‘어떻게 생각하는(what to think about)’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경험하고 있는지(what others are thinking about and experiencing)’를 말하는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서정근·정일권, 2012; 서희정·양승찬, 2019; Mutz, 1998). 이러하듯이,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집합적인 타인의 태도, 의견, 경험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인이 반응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전제로 한다(양승찬, 2002). 따라서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매스미디어가 실제 경험에 기초하는 개인 자신의 직접평가와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익명의 집합적 다중의 인식에 대한 간접평가 간에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한다(Mutz, 1998; Patterson, 1993).

머츠가 제시한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원래 카츠와 라자스펠드(Katz & Lazarsfeld, 1955)의 개인적 영향(personal influence) 개념에서 나왔다. 카츠와 라자스펠드의 개인적 영향가설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여론 선도자(opinion leader)를 거쳐 간접적으로 전달 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머츠는 비개인적 영향가설을 통해 매스미디어와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발생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수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 고유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냈다(허윤철·임영호, 2015). 비개인적 영향가설 연구에서 매스미디어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한적이지만,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비개인적 영향가설을 적용한 실증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서정근과 정일권(2012)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행위를 할 때 여론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여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여론지각이

표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증했다. 이들 연구자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여론보다는 ‘자신의 이념 및 신념’을 중심으로 표결행위를 함으로써 지각의 차이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달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서희정과 양승찬(2019)의 연구에서도 다수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보다 설득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침묵의 나선이론과는 반대의 결과를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익명의 타자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거나 평가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원자력 위험지각 연구를 수행한 김준홍(2011)도 매스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이 사회적 수준의 위험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차동필(2020)은 2009년에 발생한 신종플루에 대한 대학생들의 위험지각을 비개인적 영향가설과 차별적 영향가설의 관점에서 검증한 결과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차별적 영향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즉,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신종플루에 관한 개인적 위험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사회적 위험지각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편 차동필(2011)은 청년실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위험지각에 대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위험지각에, 대인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 위험지각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정치, 재난, 건강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검증되어 왔으며, 그 결과 개인 자신에 대한 직접평가와 타자의 인식에 대한 개인의 간접평가 간에 서로 다른 “지각분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그러나 다른 어떤 문제보다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제위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인 자신에 대한 직접평가와 타자에 대한 간접평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범위를 넓혀 매스미디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평가에 미치는 매스미디어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 왔다(이완수, 2012, 2017; Blood & Phillips, 1997; Damstra & Boukes, 2018; Wu, McCracken, & Saito, 2004). 한 예로 매스미디어 효과가 단기간의 경제 침체기에서는 나타나지만, 장기간 경제 침체기나 극단적 경제 위기 시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이완수, 2017; Wu et al., 2004).

이런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단기적으로 파급력이 강력하면서도 장기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19와 같은 경제위기 문제의 경우 비개인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문제는 개인들의 직접적인 경험 말고도 매스미디어가 양적으로 과잉 보도해 불안감을 증폭시킨 인포데믹스(infodemics) 이슈에 속하기 때문에 비개인적 영향 여부를 검증해 보기에 의미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Hu, Yang, Li, Zhang, & Huang, 2020).

2) 경제심리 반응과 지각의 분화

비개인적 영향 연구에서 개인적 차원과 집합적 차원 간의 지각차이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분야가 경제문제이다(Mutz, 1998). 경제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개인이 일상적으로 직접 경험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이완수, 2012; Zucker, 1978). 경제문제는 사람들이 일상적 경험을 통해 평가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늘 일상의 개인경험에만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미디어 보도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타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Doms & Morin, 2004; Mutz, 1998). 경험하기 어려운 거시적 국가경제에 관한 문제일수록 개인경험이 아닌 미디어에 더 의존한다(이완수, 2017; Damstra & Boukes, 2018). 사람들은 주변이웃(여기서 주변이웃은 익명의 타자를 의미함)이나 국가경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의 보도에서 얻은 경제관련 정보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간접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Doms & Morins, 2004). 이 과정에 사람들이 내리는 경제에 대한 집합적 차원의 평가는 부정적인데 반해, 개인적 차원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Mutz, 1998).

매스미디어는 경제현실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경제현실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지각이 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Blood & Phillips, 1997; Soroka, 2014). 흥미로운 점은 경제현실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이런 부정적 편향성이 사람들에게 개인경제보다 국가경제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다(Mutz, 1998).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위험문제를 평가할 때 일관되게 자신을 동료나 타자들에 비해 더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Weinstein & Klein, 1996). 사람들이 위험(위기)상황에서 자신을 타자들 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데는 '비현실적 낙관주의 편향(unrealistic optimism bias)'이 작동하기 때문이다(Brosius & Engel, 1996; Shepperd, Pogge, & Howell, 2017; Weinstein, 1980, 1989; Weinstein & Lachendro, 1982). 개인적 비관주의가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낙관적 평가를 내린다(Weinstein, 1989).

두 번째는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경험 가능한 과거나 현재 시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험을 한 과거나 현재는 물론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적 평가도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매스미디어는 데이터를 통해 과거 경제현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을 동시에 하는데, 이 과정에 사람들은 경제현실을 평가하게 된다. 실증 연구에서도 개인경제 상태와 국가경제 상태에 대한

개별 평가는 과거의 회고적(retrospective) 시점에서도 차이를 보였지만(이완수, 2017), 이런 차이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전망적(prospective) 평가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됐다(Mutz, 1998). 주목할 만 한 사실은 지각의 방향이 회고적인 경우와 전망적인 경우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머츠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적 평가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집합적 차원에 대한 미래의 전망적 평가 역시 실제 세계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회고적 평가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을 익명의 타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비현실적 낙관주의 편향”을 보인다(Shepperd, Carrol, Grace, & Terry, 2002).

세 번째는 같은 경제 이벤트에 대해 과거의 회고적 평가와 미래의 전망적 평가 간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Mutz, 1998). 사람들은 과거를 회고할 때 긍정적 효과에 대한 빈도는 과소평가하고, 반대로 부정적 효과의 빈도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Soroka, 2014; Thomas & Diener, 1990). 이런 심리적 태도는 행동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더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지각의 비대칭성이 일어난다(Soroka, 2014). 사람들은 결국 과거의 사실은 좋은 것 보다 나쁜 것을 더 비중있게 주목함으로써 평가의 왜곡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반해 사람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상황에 대한 전망적 평가에서는 비관적일 가능성 보다는 낙관적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Sharot, 2011). 결국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보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일수록 더 희망적이고, 더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hepperd et al., 2017).²⁾

한편 개인과 집합적 차원의 이 같은 판단의 분화는 장기 시계열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직접 수행한 머츠(1998)의 연구를 보면, 분석한 10년 기간 동안 사람들은 개인적 경제상황을 국가적 경제상황과 비교해 더 비관적으로 평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집합적 차원인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지각이 개인적 차원인 개인경제 형편에 대한 지각에 비해 장기 데이터에서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개인경제보다 매스미디어에 주로 의존해 간접 평가하는 국가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지각한다. 머츠가 이 연구에서 밝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의 경제형편에 대한 지각이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지각에 비해 변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비율의

2) 개인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반드시 미래의 전망적 평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개인 경험에서도 일관되게 낙관적 편향이 발견된다(Mutz, 1998).

표준편차가 개인경제의 평가비율의 표준편차에 비해 3배 정도 더 비관적이었다(Mutz, 1998). 이는 직접적인 경험 바깥에 존재하는 비개인적 세계에 대한 지각의 정도(변량)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지각의 정도에 비해 부침(浮沈)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의 논의를 통해 사람들이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개인과 집단차원에 따라, 그리고 평가시점에 따라 일관되게 서로 다르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판단 주체자의 특성과 지각의 분화

사람들이 경제현실을 평가할 때 누구나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교육, 지식, 관심, 소득, 그리고 경험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제현실에 대한 평가 역시 다르다(Mutz, 1998). 머츠(1998)는 비개인적 영향 연구에서 지각의 왜곡 못지않게, 지각의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머츠는 사람들이 개인적 차원보다 집합적 차원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여론의 왜곡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비개인적 영향가설을 다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평가주체에 따라 지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개인적 영향가설에서 지각의 분화가 지각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확도를 대표할 수는 없다. 연구자들은 비개인적 영향가설에서 지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성별, 당파성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Holbrook & Garand, 1996; Mutz, 1998). 매스미디어는 개인 경험의 집합을 반영해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지만, 그 여론은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Kolatsis, 2017). 비개인적 영향과 정치적 판단 간의 관계를 연구한 바그스테드와 바렌주엘라(Bargsted & Valenzuela, 2012)는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와 정치적 지식을 조절변수로 사용해 분석한 결과,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수의 집합적 여론으로부터 덜 영향을 받았다. 머츠도 지식수준이 높고, 정치뉴스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사회적 차원의 실업문제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Mutz, 1998).

스나이더와 로스(Snyder & Rose, 1995)는 비개인적 영향가설의 변형인 차별적 영향가설(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을 통해 매스미디어가 사회적 차원의 위험 지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매스미디어 내용이 마치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경우 사람들은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만 비교적 잘 나타나는 매스미디어의 비개인적 영향가설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테펠과 벨투이센(Stapel & Velthuisen, 1996)도 선명하고 자기 관련성(relevance)이 높은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위협평가가 모두 증대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브로시우스와 엔겔(Brosius & Engel, 1996)은 자신과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끼면 3자 효과나 비개인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 또는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어떤 문제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커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연구결과는 비개인적 영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머츠(1998)는 공중이 미디어 보도를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고 밝히면서, 특히 경제에 대한 전망의 경우 당파성을 비롯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될 수 있다고 말한다. 머츠는 경제상황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에서 미국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그리고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은 개인경제와 국가경제를 다르게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개인이나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연결한다는 사실을 시사적으로 보여준다.

미디어 이용량에 따라 경제문제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할러와 노르포트(Haller & Norpoth, 1997)의 연구이다. 할러와 노르포트는 경제뉴스를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않은 사람 간에 경제현실에 대한 평가능력에 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경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이 주로 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의심스럽고, 경제적 판단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은 현실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견해가 더 믿을 만하다고 주장한다. 우 등(Wu et al., 2004)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 사람들은 매스미디어 대신에 현실경제에 더 의존한다고 밝혔다. 일상 속에서 경험 가능한 경제문제는 평가과정에 미디어 이용정도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에 비춰볼 때 비개인적 영향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고려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단위에 대한 평가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단위에 대한 평가의 정도가 평가시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4.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분석 데이터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2020년 1월 20일)한 날로부터 2개월 후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20-69세 남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했다. 모두 1063명이 접속해 633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이 부실한 데이터 54명을 제외한 579명의 표본 데이터를 수집했다. 표본은 성별, 지역별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으로 수집했다. 구체적인 표본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pondent Characteristics

		Number	%			Number	%
Gender	Male	292	50.4	Region of residence	Daegu/N. Gyeongsang	287	49.6
	Female	287	49.6		Other	292	50.4
Age	20-29	99	17.1	News consumption	Less than 1 hr.	233	40.7
	30-39	105	18.1		1-2 hrs.	178	31.1
	40-49	131	22.6		3+ hrs.	162	28.3
	50-59	139	24.0	Education	High school or lower	97	16.8
	60-69	105	18.1		University (currently enrolled)	38	6.6
Income	0-2.99m KRW	250	43.2	University (completed)	377	65.1	
	3-4.99m KRW	176	30.4	Graduate (currently enrolled or completed)	67	11.6	
	5m+ KRW	153	26.4				
Political identification	Conservative	97	16.8				
	Progressive	159	27.5				
	Moderate	323	55.8				

조사를 이 시기로 잡은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대구·경북 등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등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이 시기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분하고 있는 감염병 위험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단계’에 해당된다. 코로나와 관련한 미디어 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데다,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은 시기여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단위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측정 문항

질문 문항은 기존의 비개인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수차례 토론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질문 문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 경제심리 반응조사로 개인적 단위, 사회적 단위, 그리고 국가적 단위로 구분해 자신과 비교해서 이웃, 국가경제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했다. 여기서 개인적 단위는 개인자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단위는 자신을 기준으로 이웃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포함하는 익명의 타자를 의미하는 사회적 개념이다. 그리고 국가적 단위는 정부를 포함해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하는 포괄적 상위개념이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경제심리 반응 조사를 회고적 시점(과거), 현재적 시점(현재), 그리고 전망적 시점(미래)으로 나눠 자신을 기준으로 이웃, 국가경제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했다. 본 연구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같은 시점에서 같은 응답자들에게 여러쌍의 질문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서베이 응답에서 미묘한 문구의 차이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준거가 필요하다(Mutz, 1998). 질문 문항의 예시(현재 기준)를 보면 (1) 나는 코로나19 발생이후 개인적으로 경제형편이 나빠졌다. (2) 나와 비교해서 이웃사람들은 코로나19 발생이후 경제형편이 나빠졌을 것이다. (3) 나와 비교해서 국가 경제상황은 코로나19 발생이후 나빠졌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같은 내용을 평가시점에 따라 표현을 달리해 질문했다. 응답은 ‘매우 나쁘다(혹은 매우 나빠졌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좋다(혹은 매우 좋아졌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했다.

한편, 이 연구의 핵심적 이론적 틀인 비개인적 영향가설의 기본적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주변사람과의 직접 대화와 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 정도를 비교 점검하였다. 주변사람과의 직접 대화보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 점수가 높은 경우에 비개인적 영향가설의 기본 가정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 자신의 경우는 “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주로 얻는 편이다”와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얻는 편이다”는 문항을 7

점 리커트 척도로 비교하였다. 이웃 사람들의 경우는 “이웃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주변사람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주로 얻을 것이다”, “이웃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얻을 것이다”는 문항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나 자신의 경우, 미디어 이용(6.07점)이 주변사람(3.89점)을 통한 정보습득 점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0.30, p < .01$). 이웃 사람들의 경우 역시 미디어 이용(5.89점)이 주변 사람(3.99점)을 통한 정보습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6.77, p < .01$).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이 연구는 비개인적 영향가설의 기본 가정을 충족했으며, 연구자들이 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개인적 영향가설을 개념화한 머즈는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전제로 비개인적 영향가설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위기 문제 역시 사람들이 이미 신문, TV 등 전통매체는 물론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에 해당된다.

5. 연구결과

연구문제 1: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단위에 대한 평가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먼저 코로나19 경제위기 영향에 대해 나 자신과 비교해 사회, 국가 단위의 평가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04.07, p < .01$). 구체적으로 자신($M = 3.21, SD = 1.34$), 사회($M = 2.68, SD = 1.34$), 국가($M = 2.31, SD = 1.44$)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 경제위기 영향에 대해 개인 자신을 가장 낙관적으로 평가했으며, 사회, 국가 순으로 갈수록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각 단위별로 통계적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방법을 이용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나 자신-사회($M_{diff} = .52, p < .01$)’, ‘나 자신-국가($M_{diff} = .89, p < .01$)’, ‘사회-국가($M_{diff} = .37, p < .01$)’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후검정을 통해 나 자신과 비교해 사회, 국가단위로 비교대상이 멀어질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영향에 대해 더 비관적(혹은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Figure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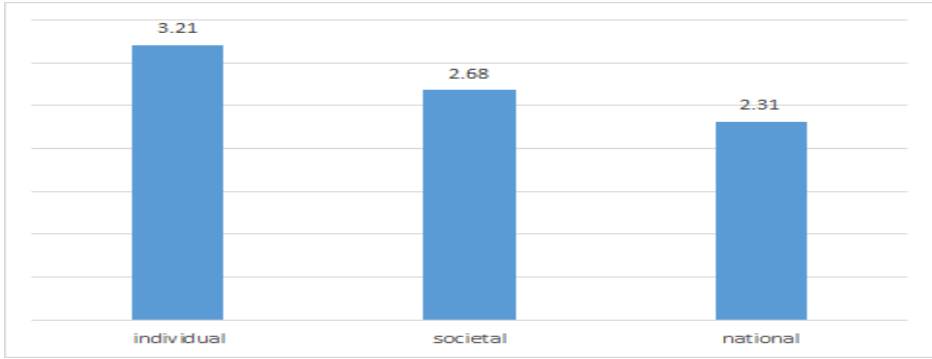


Figure 1. Evaluations of the novel coronavirus economic crisis at the individual, societal, and national levels.

한편,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개인, 사회, 국가에 대한 평가가 인구사회학적 속성(성별,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정치성향, 뉴스 이용시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경제위기에 대한 평가차이(개인, 사회, 국가)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속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코로나 발 경제위기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다, 전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2. Evaluations of the Novel Coronavirus Economic Crisis at the Individual, Societal, and National Levels with Interaction Effects

Factor	SS	df	MS	F	Post-hoc
Comparison subject	129.08	1.61	64.54	94.15**	Self > society > country
Comparison subject×gender	0.96	1.61	80.02	0.70	-
Comparison subject×age	0.91	1.61	0.56	0.66	-
Comparison subject×income	1.88	3.23	0.58	0.69	-
Comparison subject×region	4.10	1.61	2.54	2.99	-
Comparison subject×political identification	1.91	3.23	0.59	0.70	-
Comparison subject×news consumption	0.63	3.23	0.19	0.23	-
Error	771.91	908.22	0.85	-	-

** $p < .01$.

Note. Comparison subjects (self, society, country); Age = 0-39 years, 40+ years; Income level = 0-2.99 million KRW, 3-4.99 million KRW, 5+ million KRW; Region = Daegu/North Gyeongsang Province, other; Political identification = conservative, progressive, moderate; News consumption = 0-1 hours, 2-3 hours, 3+ hours.

연구문제 2: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단위에 대한 평가의 정도가 평가시점(과거-현재-미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신의 경제적 상황 평가에 대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미래와 비교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참조). 분석결과, 코로나19 경제위기 영향에 대한 개인지각은 과거, 현재, 미래와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 = 132.49, p < .01$). 구체적으로 과거($M = 3.21, SD = 1.34$), 현재($M = 3.26, SD = 1.38$), 미래($M = 4.02, SD = 1.28$)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과거를 가장 부정적으로 미래를 가장 낙관적으로 각각 평가했다. 각 단위별로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방법을 이용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과거-미래($M_{diff} = -.71, p < .01$)’, ‘현재-미래($M_{diff} = -.72, p < .01$)’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개인 자신들은 과거나 현재와 비교해 미래를 훨씬 낙관적으로 평가했다(〈Figure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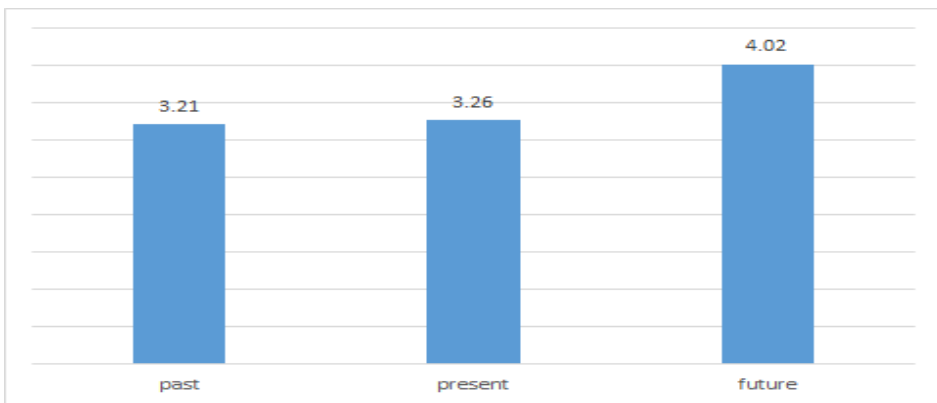


Figure 2.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 evaluations of individual economic crisis associated with the novel coronavirus.

한편, 개인 자신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시점별 평가가 인구사회학적 속성(성별,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정치성향, 뉴스 이용시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개인 자신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시점별 평가 차이 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 Evaluations of Individual Economic Crisis associated with the Novel Coronavirus with Interaction Effects

Factor	SS	df	MS	F	Post-hoc
Comparison time frames	132.49	1.52	87.16	65.61**	Past/present < future
Comparison subject×gender	3.20	1.52	2.11	1.59	
Comparison subject×age	5.94	1.52	3.91	2.94	
Comparison subject×income	4.24	3.04	1.39	1.05	
Comparison subject×region	1.71	1.52	1.13	0.85	
Comparison subject×political identification	4.10	3.04	1.35	1.01	
Comparison subject×news consumption	3.02	3.04	0.99	0.75	
Error	1136.82	855.82	1.33	-	

** $p < .01$.

Note. Comparison time frames (past, present, future); Age = 0-39 years, 40+ years; Income level = 0-2.99 million KRW, 3-4.99 million KRW, 5+ million KRW; Region = Daegu/North Gyeongsang Province, other; Political identification = conservative, progressive, moderate; News consumption = 0-1 hours, 2-3 hours, 3+ hours.

이웃 등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코로나발 경제위기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미래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결과(〈Table 4〉 참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79.5, p < .01$). 구체적으로 과거($M = 2.78, SD = 1.34$), 현재($M = 3.21, SD = 1.34$), 미래($M = 4.12, SD = 1.48$)순으로 낙관적 평가를 보였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대해 과거를 가장 부정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각 단위별로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방법을 이용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과거-미래($M_{diff} = -1.34, p < .01$)’, ‘현재-미래($M_{diff} = -1.31, p < .01$)’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공동체의 경제적 위기 영향에 대해 의견 주체자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현재보다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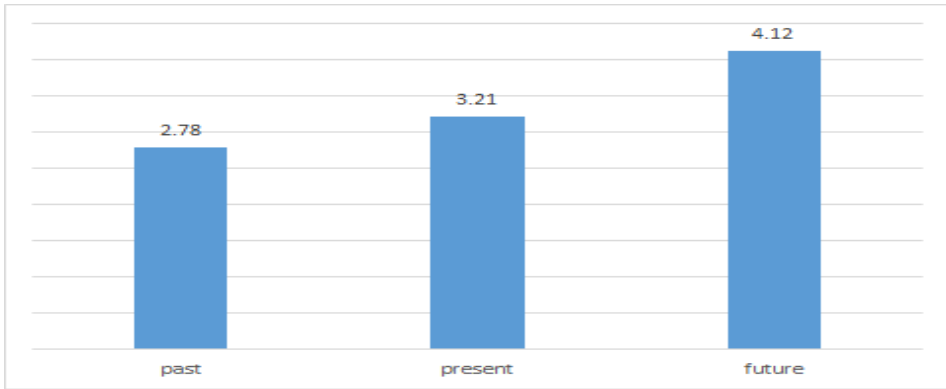


Figure 3.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 evaluations of the societal economic crisis associated with the novel coronavirus.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공동체의 경제위기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시점별 평가가 인구사회학적 속성(성별,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정치성향, 뉴스 이용시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에 대한 개인지각은 판단 기준시점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 Evaluations of the Societal Economic Crisis associated with the Novel Coronavirus with Interaction Effects

Factor	SS	df	MS	F	Post-hoc
Comparison time frames	449.79	1.442	311.86	179.50**	Past, present < future
Comparison subject×gender	2.48	1.442	1.72	0.99	
Comparison subject×age	1.54	1.442	1.07	0.61	
Comparison subject×income	1.98	2.885	0.69	0.40	
Comparison subject×region	0.27	1.442	0.19	0.11	
Comparison subject×political identification	9.35	2.885	3.24	1.87	
Comparison subject×news consumption	5.74	2.885	1.99	1.15	
Error	1410.72	811.999	1.74		

** $p < .01$.

Note. Comparison time frames (past, present, future): Age = 0-39 years, 40+ years; Income level = 0-2.99 million KRW, 3-4.99 million KRW, 5+ million KRW; Region = Daegu/North Gyeongsang Province, other; Political identification = conservative, progressive, moderate; News consumption = 0-1 hours, 2-3 hours, 3+ hours.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에 대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미래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95.09, p < .01$)(<Table 5> 참조). 구체적으로 과거($M = 2.31, SD = 1.44$), 현재($M = 2.46, SD = 1.64$), 미래($M = 4.00, SD = 1.71$)순으로 낙관적이었다. 각 단위별로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방법을 이용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과거-현재($M_{diff} = -0.12, p < .05$)’, ‘과거-미래($M_{diff} = -1.59, p < .01$)’, ‘현재-미래($M_{diff} = -1.47, p < .01$)’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영향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과거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현재와 미래의 순서로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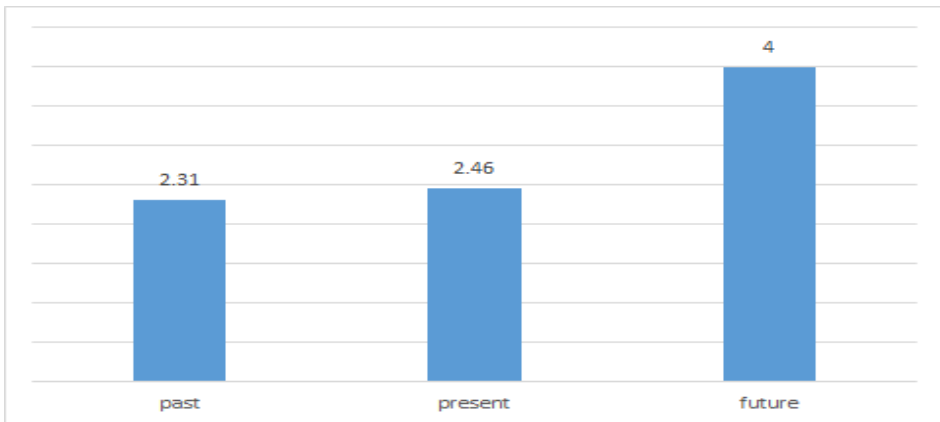


Figure 4.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 evaluations of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associated with the novel coronavirus.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시점별 비교 평가가 인구사회학적 속성(성별,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정치성향, 뉴스 이용시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성향과 국가 경제위기 평가시점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32, p < .05$)(<Table 5> 참조).

구체적으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거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중도적 성향($M = 2.23$), 보수적 성향($M = 2.32$), 진보적 성향($M = 2.48$) 집단의 순서로 낙관적이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수적 성향($M = 2.39$), 중도적 성향($M = 2.41$), 진보적 성향($M = 2.59$) 집단의 순서로 낙관적이었다(<Figure 5> 참조). 이에 반해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수적 성향($M = 3.47$), 중도적 성향($M = 3.95$), 진보적 성향($M = 4.41$) 집단의 순서로 낙관적이었다. 이는 과거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도, 보수, 진보집단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집단에 관계없이 평가가 모두 부정적(혹은 비관적)이었고, 그 차이도 크지 않았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보수, 중도, 진보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나, 긍정적 평가 정도가 과거 경제상황 평가보다는 약간 높은 가운데 전체적으로 비관적이었다. 이에 반해 경험하지 못한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보수, 중도, 진보집단 순으로 낙관적 평가를 보였으나 미래를 과거나 현재보다 일관되게 훨씬 높은 수준에서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진보집단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보수나 중도 집단에 비해 보다 낙관적 평가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진보집단의 경우 미래 시점의 낙관적 평가수준이 보수와 중도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Table 5.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 Evaluations of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associated with the Novel Coronavirus with Interaction Effects

Factor	SS	df	MS	F	Post-hoc
Comparison time frames	604.09	1.46	415.01	195.09**	Past < present < future
Comparison subject×gender	4.85	1.46	3.33	1.57	
Comparison subject×age	0.54	1.46	0.37	0.17	
Comparison subject×income	4.60	2.91	1.58	0.74	
Comparison subject×region	7.19	1.46	4.94	2.32	
Comparison subject×political identification	20.53	2.91	7.05	3.32*	
Comparison subject×news consumption	12.65	2.91	4.34	2.04	
Error	1743.28	819.51	2.13		

* $p < .05$. ** $p < .01$.

Note. Comparison time frames (past, present, future); Age = 0-39 years, 40+ years; Income level = 0-2.99 million KRW, 3-4.99 million KRW, 5+ million KRW; Region = Daegu/North Gyeongsang Province, other; Political identification = conservative, progressive, moderate; News consumption = 0-1 hours, 2-3 hours, 3+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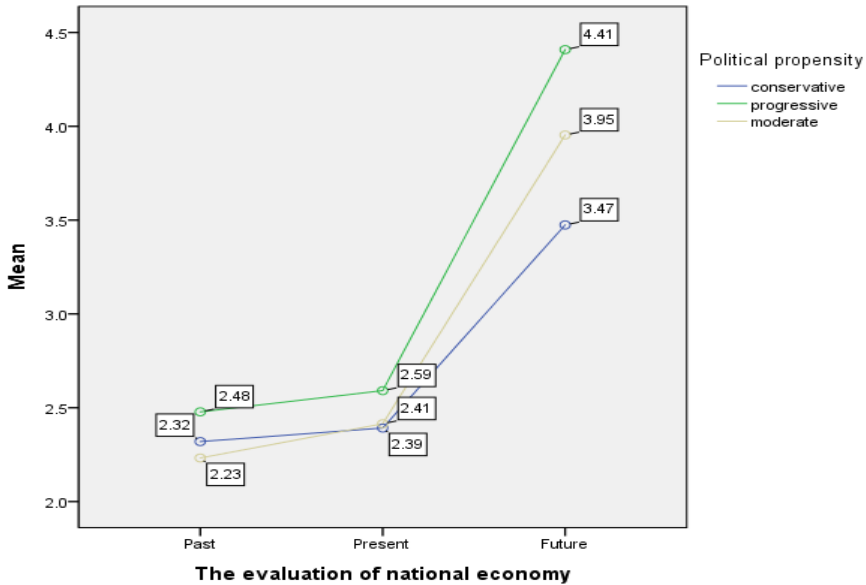


Figure 5. Interaction effect between time frame-based evaluations of the national economic situation and political identification.

그러나 본 논문상에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보수, 중도, 그리고 진보집단 할 것 없이 모두 코로나 경제위기로부터 개인경제가 사회경제나 국가경제 보다 덜 영향을 받는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경제별 평가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보수 개인($M = 3.24$)이나 진보 개인($M = 3.31$)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보수 사회($M = 2.78$)와 진보 사회($M = 2.89$), 보수 국가($M = 2.39$)와 진보 국가($M = 2.59$)간에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아래 <Figure 6>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개인, 사회, 국가)과 비교시점(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경향성을 정리한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모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미래의 경우에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대상별(개인, 사회, 국가)로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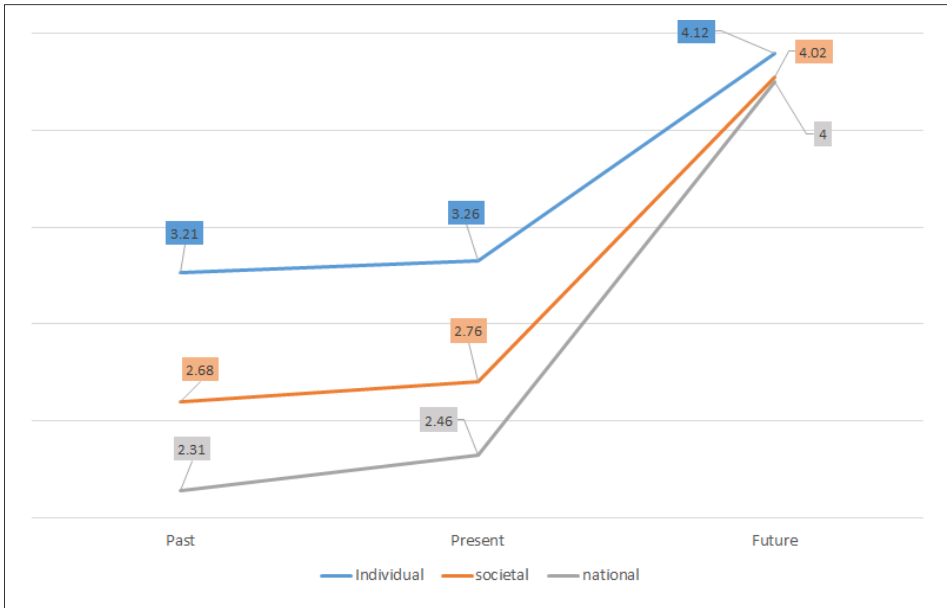


Figure 6. Interactions between comparison subject (individual, society, and country) and time frame (past, present, and future).

6. 결론 및 논의

1) 결론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개인 자신에 대한 지각과 익명의 타자에 대한 지각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기존 연구들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적 지각과 매스미디어 보도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집합적 지각 간에 “분화(compartmentalization)”가 나타난다는 이른바 비개인적 영향을 누적적으로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비개인적 영향가설은 여론시장이 비교적 자유로운 서구사회에서 주로 검증되어 왔으나, 미디어 시장 환경이 다르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한국사회에서 검증된 예는 많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짧은 시간에 매우 극단적이면서, 전국단위로 빠르게 확산된 경제이슈의 경우 비개인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제위기 영향에 대해 의견 주체자들이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단위 경제를 평가함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개인적 영향가설을 적용해 계량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 먼저 사람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개인 자신은 영향을 크

게 받지 않는다는 낙관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웃사람들이 겪는 사회경제나 또는 국가경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개인 자신을 중심으로 사회, 국가단위로 갈수록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해 사회적 거리와 지각의 분화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영향에 대한 시점별 평가는 그 대상과 관계없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개인 자신에게 미치는 경제위기 영향에 대한 시점별 비교평가에서 과거의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를 할 때 더 부정적이었으며, 반대로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전망적(prospective) 평가를 할 때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이었다. 주변 이웃들이 속하는 사회경제 위기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과거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할 때 가장 부정적이었고, 미래에 대한 전망적 평가를 할 때 가장 낙관적이었다. 또한 국가경제 위기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과거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현재와 미래로 옮겨 갈수록 더 낙관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시점에 걸쳐 개인경제나 사회경제와 비교해 일관되게 더 부정적(또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셋째는 개인, 사회, 국가경제 위기에 대한 지각분화가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거주 지역별, 뉴스이용량 등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극단적 경제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비개인적 영향이 집단의 특성에 따라 잘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현실에 대한 집단간 지각의 분화가 뉴스 이용량과 어떤 상호작용 효과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는 당초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비개인적 영향이 더 잘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분석결과는 달랐다. 또한 미국의 연구에서 나타난 소득계층에 따른 비개인적 영향도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흑인, 빈곤층, 상류층에서 경제현실에 대한 평가가 서로 차이를 보였으나 한국에서는 소득수준이 경제위기 지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의견 주체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한 영향을 다르게 평가했다. 먼저 과거경제에 대해 평가하도록 제시했을 때 중도, 보수, 진보집단의 순으로 더 낙관적이었다.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보수, 중도, 진보집단의 순으로 낙관적 평가를 했다. 이에 반해 미래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을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수, 중도, 진보집단의 순으로 낙관적이었다. 아울러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갈수록 국가경제에 대한 낙관적 평가수준이 더 높았다. 즉, 과거보다 현재의 국가경제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고, 현재보다 미래의 국가경제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개인경제는 물론 사회경제, 국가경제 모두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으며, 반대로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이를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2) 함의점

우리는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이론적 함의점을 토론했다. 첫째는 코로나발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럽고, 급격한 경제이슈 평가에 대해서도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단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 비개인적 영향가설의 타당성이 확인됐다. 사람들은 같은 경제위기라도 개인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한데 반해, 사회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비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비개인적 영향가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단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인, 사회, 국가경제 모두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지수가 낙관적인 평가지수보다 더 높아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둘째는 기존의 비개인적 영향 연구들이 개인단위와 국가단위로 나눠 살펴본데 반해 우리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로 그 단위를 보다 세분화해 측정해 본 연구결과에서도 비개인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개인적 영향이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에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 평가 정도가 더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런 결과에 비춰볼 때 사회심리적 거리와 비개인적 영향이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개인, 사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경제위기 주체와 관계없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간에 지각의 편차가 뚜렷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시점에서 상황을 더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미래상황에 대한 전망적 평가를 할 때 “비현실적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 태도를 보인다는 기존 이론을 뒷받침한다(Brosius & Engel, 1996). 이와는 반대로 과거 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할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머릿속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과 같은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 heuristic)”이 작용해 일어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Tversky & Kahneman, 1973). 아울러 비개인적 영향 연구에서 시점기준에 따른 판단분화의 차이는 평가대상뿐만 아니라, 평가시간이라는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적으로 보여 준다.

넷째는 경제이슈의 경우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영역에 속하지만, 매스미디어 보도에 의해 경제현실에 대한 지각분화나 편향이 일어난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불확실하고 광범위해서 개인자신에 대한 지각과 사회, 그리고 국가단위에 대한 지각 간에 서로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직접 경험 가능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극단적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매스미디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비개인적 영향가설이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매스미디어가 직접적인 경험이 가능한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인 자신이 접하지 못한 사회나 국가와 같은 집합단위의 경제상황에 대한 차별적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지지들은 사회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확대해석하고, 우연한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경향으로 보도하는데(Mutz, 1998), 이 과정에 개인과 사회 환경에 대한 지각에 차이를 낳는다. 개인적 지각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이뤄지는데 반해, 비개인적 지각은 매스미디어로부터 더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경향은 뉴스 보도가 경제위기에 대한 집합적 차원의 판단과 지각을 지나치게 비관주의적 편향으로 이끈다.

다섯째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위험(위기)상황에 놓일수록 주변 사람들보다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도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여기서는 우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사람들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본능적으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편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Brosius & Engel, 1996; Shepperd et al., 2017; Weinstein, 1980; Weinstein & Lachendro, 1982). 사람들은 위험상황에 직면할 때 합리적 판단을 하기 보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낙관적 태도를 더 우선적으로 취한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신을 타자보다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상대적 낙관론(comparative optimism)”을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불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이 남보다는 덜 불행하다고 여기는 자아 보호적 동기와 방어적 반응을 보인다.

사람들이 자신을 타자보다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에는 인지적 오류도 무시할 수 없다. 단적인 예가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 heuristic)”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을 떠올릴 때 판단기준의 대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Shepperd et al., 2002), 이 과정에 오류가 쉽게 발생한다. 쉐퍼드 등(2002)의 지적을 빌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험 가능성을 예측할 때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판단하기 보다는 특정의 “평균적인 대상(average target)”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판단을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보다 위험요소가 더 많은 불확실한 타자를 정형화된 이미지로 떠올려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낙관적 평가를 내린다.

여섯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일은 자신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함으로써 불안감을 줄이는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ement

bias)”과 연결해 설명해 볼 수도 있다(Goethals, Messick, & Allison, 1991; Hoorens, 1993).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맞춰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는 습성이 있다(Schlenker, 1980). 사람들은 사회가 수용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인 이미지를 유지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Shepperd et al., 2002), 이런 경향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성(socialnes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즉, 사람들은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방향에 맞춰 응답을 하는 동기를 갖게 되고, 이 결과 자신에 대해 더 낙관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게 된다.

일곱째는 평가 주체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가경제 위기를 다르게 평가한 점도 흥미롭다. 진보집단은 개인경제는 물론 사회나 국가경제에 대해서도 보수나 중도집단보다 모든 평가시점에 걸쳐 더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진보집단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영향에 대해 보수나 중도집단보다 일관되게 낙관적 태도를 보인 점은 사실 예상 밖의 결과이다. 전통적으로 진보집단은 보수나 중도집단에 비해 국가경제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국가경제를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반대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진보집단이 문재인 진보정부의 국가경제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국가경제 평가에 투사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가시점 변수를 제외하고 정치 성향에 따라 개인, 사회, 국가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진보집단이 보수나 중도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더 긍정적이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보수, 중도, 진보와 같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제위기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다는 정치적 지각분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여덟째는 경제위기 이슈에서 확인된 비개인적 영향은 경제여론과 정부평가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투표행위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형편과 국가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과정에 언론이 형성하는 경제여론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MacKuen et al., 1992; Feldman, 1982; Kinder, Adams, & Gronke, 1989). 언론이 만들어내는 여론은 개인 경제형편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회(혹은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 개인경제 형편과 국가경제 상황을 다르게 평가한다. 개인경제보다는 국가경제 문제를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각분화의 차이는 정치적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개인적 영향가설을 제안한 머츠(1998)도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판단의 분화는 여론에 대한 왜곡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투표와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집합적 지각을 바탕으로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시민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취약할 수 있다. 미디어는 통상 '국가경제'를 비판적인 방향으로 보도하기 때문에(Soroka, 2014) 시민들은 점화효과(priming effect)를 통해 정치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이론 틀을 적용해 볼 때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한 비개인적 영향은 한국 유권자들이 개인의 경제형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포켓북(pocketbook)" 투표행위 보다는 사회나 국가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회지향성(sociotropic)" 투표행위를 보다 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경제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보인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여론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경제적 양극화를 만들어 내거나,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적 지각분화는 국가경제 환경에 대한 집단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3)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글로벌 위험이슈인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사람들이 개인과 집합 단위에서의 판단에 분화를 보인다는 비개인적 영향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인단위와 국가단위로 살펴본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개인, 사회, 국가 단위로 좀 더 세분화해 비개인적 영향이 평가시점에 따라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분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진전을 이루었다. 아울러 비개인적 영향가설이 평가주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 점도 이론 확장에 기여점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확인된 경제위기 이슈에 대한 비개인적 영향을 통해 정치경제 여론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라는 특정 사회이슈를 대상으로 특정정부 시기에 비개인적 영향가설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경제이슈와 긍정적 경제이슈를 동시에 제시해 비개인적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지는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 경제위기와는 달리 경제이슈가 긍정적인 경우에도 비개인적 영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슈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비개인적 영향이 나타나는지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경기국면이 좋은 시기와 정치적으로 보수정부에서도 이런 비개인적 영향이 나타나는지 측정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Baker, S. R., Bloom, N., Davis, S. J., & Terry, S. J. (2020). *Covid-induced economic uncertainty* (No. w2698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argsted, M. A., & Valenzuela, E. (2012). Political judgments and impersonal influence: Exploring the role of cognitive moderators. Retrieved from <http://www.opiniaopublica.ufmg.br/site/files/biblioteca/Bargsted-e-Valenzuela-2012.pdf>
- Barua, S. (2020). Understanding Coronanomic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On-Line]. *SSRN Electronic Journal*.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2139/ssrn.3566477>
- Blood, D. J., & Phillips, P. C. (1997). Economic headline news on the agenda: New approaches to understanding causes and effects. *Communication and democracy: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s in agenda-setting theory*, 97-113.
- Brosius, H. B., & Engel, D. (1996). The causes of third-person effects: Unrealistic optimism, impersonal impact, or generalized negative attitudes towards media influ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42-162.
- Cha, D. P. (2011).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risk to youth unemploy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3), 325-348.
- Cha, D. P. (2020). The impacts of mass communicat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to health related message on public's risk perception. *Journal of the Humanities*, 58, 647-674.
- Damstra, A., & Boukes, M. (2018). The economy, the news, and the public: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economic news on economic evaluations and expectations [On-Line]. *Communication Research*.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177/0093650217750971>
- Doms, M. E., & Morin, N. J. (2004). *Consumer Sentiment, the Economy, and the News Media*.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No. 2004-09).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2139/ssrn.602763>
- Feldman, S. (1982). Economic self-interest and politic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3), 446-466.
- Fernandes, N. (2020). Economic effects of coronavirus outbreak (COVID-19) on the world economy [On-Line]. *SSRN Electronic Journal*.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2139/ssrn.3557504>
- Goethals, G. R., Messick, D. M., & Allison, S. T. (1991). The uniqueness bias: Studies of constructive social

- comparison. In J. Suls & T. A. Wills (Eds.),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 149–17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aller, H. B., & Norpoth, H. (1997). Reality bites: News exposure and econom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1(4), 555-575.
- Heo, Y.-C., & Im, Y.-H. (2015). The influence of audiences' exposure to foreigners' crime news on their perceived risk.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6(3), 267-302.
- Hetherington, M. J. (1996). The media's role in forming voters' national economic evaluations in 199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 372-395.
- Holbrook, T., & Garand, J. C. (1996). Homo economus? Economic information and economic vot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9(2), 351-375.
- Hoorens, V. (1993). Self-enhancement and superiority biases in social comparis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1), 113-139.
- Hu, Z., Yang, Z., Li, Q., Zhang, A., & Huang, Y. (2020). Infodemiological study on COVID-19 epidemic and COVID-19 infodemic. doi: 10.20944/preprints202002.0380.v3.
- Jacobs, L. R., & Shapiro, R. Y. (1994). Questioning the conventional wisdom on public opinion toward health reform.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7(2), 208-214.
- Katz, E. & Lazarsfeld, P. F. (1955).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NY: The Free Press.
- Kiewiet, D. R. (1983). *Macroeconomics and micropolitics: The electoral effects of economic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nder, D. R., Adams, G. S., & Gronke, P. W. (1989). Economics and politics in the 1984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2), 491-515.
- Kim, J. H. (2011). Effects of communication channels on nuclear risk perception: Testing impersonal impact hypothesi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6), 253-276.
- Kolatsis, S. (2017).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and impersonal influences on clothing brand status consumption across different population grou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retoria, Pretoria, South Africa.
- Lee, W.-S. (2012). *Economy Communication*. Seoul: Spinning Wheel of Time.
- Lee, W.-S., & Sim, J.-C. (2012). Empirical analysis of economic communication effect theory: Path, direction, intensity, persistence test among Korean economic time series variabl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1), 36-77.

- MacKuen, M. B., Erikson, R. S., & Stimson, J. A. (1992). Peasants or bankers? The American electorate and the US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3), 597-611.
- Mutz, D. C. (1992). Impersonal influence: Effects of representations of public opinion on political attitudes. *Political Behavior*, 14(2), 89-122.
- Mutz, D. C. (1998). *Im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terson, R. (1993). Collective identity, television and Europe. *National Identity and Europe*, 1-7.
- Seo, H. J., & Yang, S.-C.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mpersonal collectiv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personal behaviors.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22(1), 127-162.
- Seo, J.-G., & Jeong, I. K. (2012). Effects of mass media on the voting deci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Focused on Mutz's impersonal influence.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25, 87-130.
- Sharot, T. (2011). The optimism bias. *Current Biology*, 21(23), R941-R945.
- Shepperd, J. A., Carroll, P., Grace, J., & Terry, M. (2002). Exploring the causes of comparative optimism. *Psychologica Belgica*, 42(1/2), 65-98.
- Shepperd, J. A., Pogge, G., & Howell, J. L. (2017). Assessing the consequences of unrealistic optimism: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50, 69-78.
- Snyder, L. B., & Rouse, R. A. (1995). The media can have more than an impersonal impact: The case of AIDS risk perceptions an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7(2), 25-145.
- Soroka, S. N. (2014). *Negativity in democratic politics: Causes and consequence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pel, D. A., & Velthuisen, A. S. (1996). "Just as if it happened to me": The impact of vivid and self-relevant information on risk judgm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1), 102-119.
- Thomas, D. L., & Diener, E. (1990). Memory accuracy in the recall of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2), 291.
- Tyler, T. R., & Cook, F. L. (1984). The mass media and judgments of risk: Distinguishing impact on personal and societal leve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693.
- Tversky, A., & Kahneman, D. (1973).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2), 207-232.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806.
- Weinstein, N. D., & Klein, W. M. (1996). Unrealistic optimism: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1), 1-8.
- Weinstein, N. D., & Lachendro, E. (1982). Egocentrism as a source of unrealistic optim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2), 195-200.
- Weinstein, N. D. (1989). Optimistic biases about personal risks. *Science*, 246(4935), 1232-1234.
- Wu, H. D., McCracken, M. W., & Saito, S. (2004). Economic communication in the 'lost decade' news coverage and the Japanese recession. *Gazette(Leiden, Netherlands)*, 66(2), 133-149.
- Yang, S. C. (2002). Mass media as a new 'general others'. *Newspaper & broadcasting*, 374, 68-73.
- Yu, K. D. S., & Aviso, K. B. (2020). Modelling the economic impact and ripple effects of disease outbreaks. *Process Integration and Optimization for Sustainability*, 1-4.
- Zucker, H. G. (1978). The variable nature of news media influence.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1), 225-240. doi: 10.1080/23808985.1978.11923728

최초 투고일 2020년 6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0년 9월 14일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5일

부록

- 김준홍 (2011).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원자력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비개인적 영향 가설 검증.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253-276.
- 서정근·정일권 (2012). 국회 표결행위에 미치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머츠(Mutz)의 비대인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5호, 87-130.
- 서희정·양승찬 (2019). 비개인적 타자 정보 평가와 다수에 대한 경험이 개인의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정치정보연구>, 22권 1호, 127-162.
- 이완수 (2012). 경제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시간의 물레.
- 이완수·심재철 (2017). 경제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언론학보>, 61권 1호, 36-77.
- 양승찬 (2002). 새로운 '일반적 타자'로서 매스 미디어. <신문과 방송>, 374호, 68-73.
- 차동필 (2011).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청년실업에 관한 대학생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1권 3호, 325-348.
- 차동필 (2020).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차원 건강 통제소재가 공중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인문연구>, 58호, 647-674.
- 허윤철·임영호 (2015).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6권 3호, 267-3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경제위기 평가에 대한
비개인적 영향가설 검증
경제단위와 평가시점에 대한 지각분화를 중심으로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유재웅

(울지대학교 홍보디자인학과 교수)

본 연구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영향에 대해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단위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비개인적 영향가설(impersonal influence hypothesis)을 적용해 계량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 논문은 성별과 인구비례 할당을 통해 수집한 전국 성인 579명의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은 '반복 측정 ANOVA(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방법을 사용하였다. 검증결과, 첫째, 사람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개인 자신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평가를 한 반면에, 이웃사람이 속한 사회경제나 국가경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특히 사람들은 개인 자신을 중심으로 사회, 국가단위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둘째, 사람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영향에 대해 평가시점과 관계없이 개인이나 사회경제보다 국가경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셋째, 사람들은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경제에 대해 과거의 회고적 평가를 할 때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현재에서 미래 순으로 갈수록 전망적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넷째, 개인, 사회, 국가경제 위기에 대한 판단분화는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거주 지역별, 뉴스이용량 등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시점 모두에서 국가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진보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국가경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론적으로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자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상대적 낙관주의' 태도를 보인다. 사람들은 자기보호 동기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인지적 편향에 따라 '상대적 낙관주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특히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미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것 역시 "비현실적 낙관주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반해 사람들이 과거 상황을 회고적으로 평가할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머릿속의 부정적인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가용성 편향과 같은 휴리스틱(heuristic)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부정적인 일은 자신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 "자기고양 편향"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영향을 평가할 때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핵심어: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개인적 영향이론, 판단분화, 비현실적 낙관주의